

# TOURISM SCOPE

E-book

Volume 28  
2013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72개 도시 정부와 34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http://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03 CULTURE & TRAVEL**  
컬러풀 필리핀, 마닐라의 매력
- 07 SPECIAL**  
365일 축제와 같은 열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13 CITY THEME TOUR**  
중국 속의 유럽, 해변 도시  
칭다오 靑島 Qingdao
- 17 CITY THEME TOUR**  
두 가지 테마로 떠나다  
Classic and Modern Bangkok
- 21 TREND & ANALYSIS**  
자전거 바퀴로 만나는 세상  
Round to the World!
- 25 FESTIVAL CALENDAR**
- 27 TPO NEWS**
- 29 TPO INTERVIEW**  
빅토르 콘드라쇼프(Viktor Kondrashov),  
러시아 이르쿠츠크 시 시장

컬러풀 필리핀

## 마닐라의 매력

럭셔리한 호텔과 스파에서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고,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대형  
 쇼핑몰에는 없는 게 없다. 밤이  
 되면 고층 건물들이 남국의  
 밤하늘과 어우러져 멋진  
 야경을 그려내고, 시내에는  
 화려한 나이트 라이프가 숨어  
 있다.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지프니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먼 옛날 스페인  
 식민 시절의 문화유산이  
 불쑥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휴양과 쇼핑, 관광이 모두  
 가능한 컬러풀한 이 도시는  
 모든 여행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컬러풀한  
마닐라의  
낮과 밤



마닐라에서의 하루는 지루할 틈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컬러를 내는 마닐라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도시의 매력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것이다. 부지런한 여행자의 아침 투어로는 말라테 지역에 있는 리잘 공원(Rizal Park) 산책을 추천한다.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이 처형되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신시가지인 마카티 지역에 위치한 필리핀 전통 도서관(Filipinas Heritage Library)과 도회적인 그 주변을 거닐어도 좋다.

인트라무로스(Intramuros)는 여유로운 낮에 찾으면 좋은 스폿이다. 식민지 시절 스페인 군사들이 필리핀 원주민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으려고 지은 3.7km에 이르는 성벽으로 438년 전에 지어진 독특한 요새다. 일부는 파괴되었지만 스페인에서조차 볼 수 없는 중세 스페인의

전통 건축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광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산아구스틴 교회를 비롯, 견고한 산티아고 요새까지 느긋하게 둘러보고자 한다면 도보보다는 마차가 제격이다. 아기자기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에서는 필리핀 본연의 풍경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여러 시장 중 티엔데시타스(Tiendesitas)는 희귀한 애완동물부터 약재, 먹을거리, 장신구, 고가구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모란시장 같은 곳이다.

쇼핑을 하며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고 싶다면 이스트우드시티(Eastwood City)로 걸음을 옮겨보자. 캐주얼 레스토랑부터 럭셔리한 카페, 현지 맛을 내는 로컬 식당, 바와 클럽,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기자기한 소품 숍과 패션몰까지 한데 어우러진 단지다. 트렌드세터에게는 이스트우드시티 G6 블록에 자리 잡은 서커

(CIRCA)가 기다리고 있다.

세부와 보라카이만큼 이름난 휴양지는 아니지만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는 마닐라베이에서 호젓한 저녁을 맞이해보자. CCP 하버스퀘어 주변에 즐비한 바와 레스토랑에서 마닐라의 청춘들과 어울려도 좋고, 한적한 해안가에 띄엄띄엄 앉아 잔잔한 파도를 즐기는 현지인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 또 마닐라베이에서는 유람선도 타볼 수 있다. 도시 경관을 유유자적 둘러보며 생선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현지 스타일에 맞춰 얼음을 채워 마시는 맥주 한 모금은 빠지지 않는 별미다. 무엇보다 마닐라에서는 선량하고 여유로운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다. 경쾌한 웃음소리와 음악이 도시 곳곳 퍼지는 마닐라는 긍정적인 기운까지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몰 오브 아시아** Mall of Asia

몰 오브 아시아는 그 길이만도 1km에 달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 몰이다. 모두 4개의 건물이 이어진 형태로, 전 세계 유명 브랜드 숍과 푸드코트는 물론 아이스링크와 아이맥스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몰 오브 아시아의 백미는 저녁 무렵. 마닐라베이를 붉게 물들이는 환상적인 저녁노을을 볼 수 있어서다.

주소 J.W. Diokno Boulevard, Mall of Asia Complex CBP - 1A Pasay 1300 전화 63-2-556-0680 홈페이지 www.smmallofasia.com

**당신이 즐겨야 마땅한 마닐라**  
 마닐라를 보라카이로 건너가기 위한 경유지 정도로 알고 있다면, 이곳에 가보라. 전형적인 관광 코스 파상한 폭포와 히든밸리 외에 당신이 꼭 가봐야 할 스폿을 모아봤다.



**마닐라의 중세 도시 인트라무로스** Intramuros

빽빽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숨은 듯 자리한 인트라무로스. 이곳은 16세기경,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하던 당시 만들어진 도시다. 중세 스페인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성과 요새, 성당 건물 등이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채 점점이 자리 잡고 있다. 필리핀의 영웅인 호세 리잘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처형당한 아픔도 서려 있는 인트라무로스. 산티아고 요새와 카사 마닐라, 마닐라 대성당 등 볼거리도 많다.

찾아가는 법 LRT-1 센트럴 터미널 역에서 하차



**몽환적인 저녁 풍경 마닐라베이** Manila Bay

시원한 바닷바람을 친구 삼아 해안가를 산책하고, 남국의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몽환적인 저녁노을을 보고 싶다면 마닐라베이가 제격. 산책로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을 펼치는 악사들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주변 레스토랑에서는 시원한 산미구엘 맥주를 판매한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저녁 풍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선셋 크루즈를 타는 것도 좋겠다.



주소 Roxas Boulevard, Manila



**모던한 필리핀을 만나다 아얌라 박물관** Ayala Museum

삼성미술관 리움을 연상케 하는 아얌라 박물관은 층별로 현대미술 전시와 전통 도자 전시, 이벤트성 기획 전시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가장 각광받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하면 섬세한 미니어처로 꾸며진 필리핀 역사를 흥미롭게 들여다볼 수도 있다. 단, 사진 촬영은 금지.

홈페이지 www.ayalamuseum.org



**책과 숲의 향기가 흐르는 곳**

**필리핀 전통 도서관** Filipinas Heritage Library

1937년 미국에 의해 지어진 공학 건물을 학구파 필리피노를 위한 도서관으로 개조한 곳이다.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지만 필리핀의 역사적 서적을 2만 권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대 서적과 오디오,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자료가 빼곡하다. 학술 회의를 위해 공간을 임대해줄 뿐 아니라, 탁아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풀향기가 물씬 풍기는 정원이 연결돼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전화 63-2-892-1801 홈페이지 [www.filipinaslibrary.org.ph](http://www.filipinaslibrary.org.ph)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박물관 말라카냥 박물관** Malakanang Museum

독립 이후 2009년까지 13대 필리핀 대통령의 기록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공항 출입국관리소를 방불케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단 내부에 들어서면 수풀 속 건물과 미려한 공간안에 경이로운 역대 대통령의 서재와 마르코스의 초상화, 이멜다의 분홍 구두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우리나라 서적도 볼 수 있다. 중세 스페인풍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휘황찬란한 유물들이 시선을 압도한다.

주소 Manila JP Laurel St. San Miguel 전화 63-2-733-3721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1:30, 13:00~15:00



**경쾌한 분위기의 거리**

**이스트우드시티** Eastwood City

가장 필리핀적인 이벤트 거리를 찾는다면 단연 이스트우드시티다. 매 시간 떠들썩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분수 광장 주변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부터 바와 레스토랑, 클럽, 쇼핑몰이 빼곡하다.

주소 E. Rodriguez Jr Ave., Libis Quezon City 홈페이지 [www.eastwoodcity.com](http://www.eastwoodcity.com)

**도시 위의 크루즈 리조트 월드 마닐라** Resort World Manila

필리핀 최초로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복합 위락 단지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최고급 럭셔리 호텔부터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상용 호텔, 경제적인 버짓(Budget) 호텔까지 모든 고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등급의 호텔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최신식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월드 클래스 수준의 공연, 초대형 규모의 카지노 시설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마닐라 메트로시티 심장부 중에서도 최적의 요충지로 꼽히는 뉴포트 시티(Newport City)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홈페이지 [www.rwmanila.com](http://www.rwmanila.com)

**필리핀 전통시장 투어**  
**티엔데시타스** Tiendesitas

희귀한 애완동물부터 정원용품, 현란한 장신구, 동양적인 고가구까지 상점이 즐비하다. 동물 냄새가 싫은 사람들에게는 접근 불가한 지역이지만 곳곳에 보물 창고가 숨어 있으니 여유를 갖고 가볼 것.



주소 Frontera Verde, Ortinas Avenue cotner CS, Baragay Ugong, Pasig City 운영시간 12:00~24:00

365일 축제와 같은 열기!

#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 트렌드가 어우러져 365일 축제와 같은 열기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 그중 쇼핑 스페셜리스트들에게도 각광받는 도시 쿠알라룸푸르는 쇼퍼홀릭들에게 성지나 다름없다. 옷장 가득 쌓인 옷을 죄다 꺼내봐도 한숨밖에 나온 것이 없다면 특별히 가벼운 트렁크를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쇼핑이 최대 목표였다 해도 쿠알라룸푸르의 아름다운 도심 여행은 당연한 기본 옵션. 쇼핑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음식의 맛까지 느낄 수 있다면 더욱 풍성한 여행이 된다.



# Shopping Hot Place

## For luxury

### 상류사회를 엿보다

#### 스타힐 갤러리 Starhill Gallery

파빌리온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스타힐 갤러리는 루이비통이나 구찌, 랄프로렌 등 명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 쇼핑센터다.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말레이시아의 최신 명품 트렌드와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지하의 티(tea) 살롱에서는 60여 가지의 차 세트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18~35링깃(부가세 별도) 정도면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주소 Starhill Gallery 181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전화 03-2782-3855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tarhillgallery.com



##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

### 수리아 KLCC Suria KLCC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 자리한 수리아 KLCC는 이세탄, 팍슨 같은 대형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푸드코트, 영화관, 아쿠아리움 등이 들어서 있어 원 스톱(one stop)으로 쇼핑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로 손꼽히고 있다. 톱숍(Top Shop)은 물론 망고(MANGO)와 같은 친숙한 브랜드가 세일 기간이면 상품별로 20~7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특히 패셔니스트 사이에서 유명한 영국 브랜드 미스 셀프리지(Miss Selfridge), 웨어하우스(Warehouse), 도로시 퍼킨스(Dorothy Perkins) 등도 10만 원 가량의 티셔츠 가격이 1만 원까지 내려간다. 최소 반나절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주소 Lot. No. 241 Level 2 Suria KLCC Kuala Lumpur City Centre 50088 Kuala Lumpur 전화 03-2382-8448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uriaklcc.com.my



## 명품 브랜드의 파격적인 가격 파빌리온 Pavilio

고급 호텔의 화려함으로 무장한 쇼핑센터, 칵테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세련된 바와 레스토랑까지, 부킷빈탕은 24시간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쿠알라룸푸르의 중심지다. 450여 곳의 대형 점포에서는 오프쿠튀르에 자주 등장하는 최고급 브랜드부터 다른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미유통 브랜드까지 판매하고 있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다. 딱히 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면세 수준인 말레이시아 정상 가격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쇼핑하다가 출출할 때면 1층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 5~10링깃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도 놓칠 수 없다.

주소 168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전화 03-2118-8833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avilion-kl.com

## SHOPPING TIP

### 부킷빈탕 로드와 수리아 KLCC 사이

쿠알라룸푸르 쇼핑의 핫 스폿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위치한 수리아 KLCC 지역과 파빌리온, 스타힐 갤러리가 위치한 부킷빈탕으로 나뉜다. 이 두 지역은 쾌적한 에어컨 설비가 갖춰진 지상통로 페데스트리안 워크웨이(KLCC-Bukit Bintang Pedestrian Walkway)로 연결돼 있어 여유로운 걸음으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택시 잡기 어려운 세일 기간에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





Low-Priced Local Brands

활기 넘치는 거리 송아이왕 플라자 Sungei Wang Plaza & 로트10 Lot10

화려한 명품 쇼핑몰도 좋지만 말레이시아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중저가 쇼핑몰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킷빈탕 사거리에 있는 송아이왕 플라자는 저가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는 30년 역사의 쇼핑몰이다. 작은 숍들이 아기자기하게 붙어 있고,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의류와 액세서리,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곳으로 판매원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특징. 타투 숍을 비롯해 영화관, 인터넷 카페, 에스테틱 살롱 등이 있어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송아이왕 플라자와 부킷빈탕 모노레일 역 통로로 연결돼 있는 로트10 역시 일본계 백화점인 이세탄이 입점해 있고, 다양한 메뉴의 푸드코트가 있어 출출함을 달랠 수 있는 곳이다. 송아이왕 플라자와 마찬가지로 로컬 브랜드와 중저가 제품들이 눈에 주로 띈다.

주소 Lower Basement One Sungei Wang Plaza SWP Box No. 009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전화 03-2148-6109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ungeiwang.com



Bazaar

말레이시아 속의 중국 차이나타운 Chinatown

말레이시아는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가 전 국민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도 그 때문. 이들을 통해 중국의 명절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차이나타운에는 진씨서원과 중국 대회당, 불교 사찰인 관음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센트럴 마켓에서 도보로 1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분위기 역시 중국색이 강할 뿐 큰 차이는 없다. 의류와 잡화, 군것질거리를 파는 상점과 중국음식점이 늘어서 있고 늘 사람들로 붐빈다. 구경하면서 비닐포장으로 파는 3링깃짜리 열대과일을 사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찾아가는 길 센트럴 마켓에서 파사르세니(Pasar Seni) 역 방향으로 철도 노선을 10분 정도 따라가다보면 왼편에 차이나타운으로 진입하는 길이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전통을 발견하다 센트럴 마켓 Central Market

쿠알라룸푸르 서남쪽에 위치한 센트럴 마켓은 부킷빈탕 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15분 정도면 도착한다. 택시비는 10링깃 정도. 입구에 들어서면 말레이시아가 자랑하는 주석 제품을 비롯해 목공예품, 보석, 전통의상, 골동품을 판매하는 쇼핑거리가 펼쳐진다. 저렴한 가격의 기념품을 구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주말에는 민족 무용 공연이 개최되기도 한다.

주소 Jalan Hang Kasturi 50050 Kuala Lumpur 전화 03-2274-6542 운영시간 10:00~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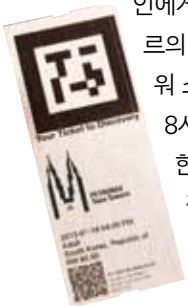
# Attraction

하늘 위의 다리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브리지에서 내려다보는 쿠알라룸푸르의 전경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다. 그리고 센트럴 마켓까지 갔다면 코앞에 있는 메르데카 광장을 가보지 않을 수 없다. 내친김에 택시 기본요금 거리인 독특한 외형의 국립 모스크까지 둘러볼 수 있다.

##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Petronas Twin Towers

쌍둥이 빌딩으로는 단연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타워를 연결한 다리인 스카이 브리지(Sky Bridge)는 쿠알라룸푸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명소. 최근 타워 최상층부와 가장 가까운 86층의 전망대가 일반인에게 개방돼 타워 중간보다 훨씬 높은 장소에서 쿠알라룸푸르의 색다른 전경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스카이 브리지와 전망대 입장권은 티켓 카운터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하루 입장 가능한 인원이 한정돼 있어 원하는 시간대에 관람하기 위해서는 오전 일찍 방문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장료 성인 80링깃, 만 12세 이하 어린이 30링깃 홈페이지 [www.petronastwintowers.com.my](http://www.petronastwintowers.com.my)



## 도심 휴식처

### 메르데카 광장 Dataran Merdeka

센트럴 마켓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메르데카 광장은 8.2ha의 깨끗하고 우아한 광장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영국 통치에서 벗어난 1957년 8월 31일 광장에 설치된 100m 높이의 국기 게양대에 말레이시아 국기가 처음으로 게양됐다고 한다. 광장 맞은편 끝에는 여행자들이 와서 쉬거나 목을 축일 수 있는 식수대가 있으며 우아한 기둥, 아름다운 금잔화와 백일초가 만발한 광장 밑에는 푸트라 플라자(Plaza Putra)가 있다.

주소 Merdeka Square 57000 Kuala Lumpur

## 회교 사원

### 국립 모스크 National Mosque

센트럴 마켓과 차이나타운까지 갔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 모스크를 안 가볼 수 없다. 교통편이 애매해 택시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 말레이시아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국립 회교 사원으로, 전통적인 회교 예술이나 서예 장식 등을 우아하게 표현한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모스크 형태는 우산을 여러 번 접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독립정신을 나타내는 심벌로 유명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73m 높이의 회교 사원의 탑은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상징물 가운데 하나다. 입장객들은 남녀 불문하고 무료로 대여하는 보라색 가운으로 전신을 가려야 한다.

주소 Jalan Lembah Perdana 50480 Kuala Lumpur 운영시간 10:00~12:00, 15:00~16:00, 17:30~18:30 금요일 15:00~16:00, 17:30~18:30,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masjidnegara.gov.my](http://www.masjidnegara.gov.my)



## 우아한 빛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 Sultan Abdul Samad Building

메르데카 광장 바로 옆에 있는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 영국 식민지 시대인 1897년에 건축된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은 역사적인 가치가 풍부한 건물로 과거에는 말레이시아 행정부의 주요 부서가 자리했다. 40m 높이의 시계탑과 햇볕을 받으면 우아하게 빛나는 구리로 만든 돔으로 덮여 있어 새해를 맞는 신성한 의식과 독립기념일인 메르데카(Merdeka) 데이의 시가 행진 등에서는 멋진 배경 구실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법원과 섬유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 바로 옆

# Choice for gourmet

미식가들을 위한 선택. 아시아 각국의 대표 요리가 모두 모여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누리는 식도락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갖가지 향신료로 독특한 맛을 낸 말레이시아 전통요리는 입맛 까다로운 여행자도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필수 코스.

## 고급스럽게 즐기는 딤섬

**노보텔 칭첸** Novotel Qing Zhen

쿠알라룸푸르의 부킷빈탕 거리에 위치해 있는 노보텔의 중식당 칭첸은 고급스러운 요리를 맛보고자 하는 여행자가 즐겨 찾는 곳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 속하지만 한국 돈으로 2만~3만 원이면 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으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 특히 딤섬이 유명한데 입맛에 따라 수십여 가지의 딤섬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자들을 위해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딤섬 뷔페 이벤트가 간간히 진행되니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주소 2 Jalan Kia Peng 50450 Kuala Lumpur  
전화 03-2147-0888 운영시간 런치 12:00~14:30, 디너 18:30~22:00 홈페이지 www.novotelklcitycentre.com



## 야외 테라스에서 즐기는 전통 공연

**송켓 레스토랑** Songket Restaurant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송켓

레스토랑은 정통 말레이의 맛을 고수하면서도 외국인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한 퓨전 요리로 유명하다. 송켓은 손으로 찢는 말레이시아 전통 실크의 이름과 같다. 그에 걸맞게 말레이 가옥을 현대식으로 재현한 입구에 들어서면 금실과 은실로 짠 송켓이 전시돼 있다. 내부는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과 야외 테라스 석으로 나뉘어 있으며, 야외 테라스에서는 매일 밤 8시 30분부터 말레이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전통 공연이 펼쳐진다. 송켓 레스토랑의 매력은 바로 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즐기는 저녁식사다. 소고기와 닭고기 꼬치 요리인 사테(Satay)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식 소갈비 양념 구이 루숙 팡강(Rusuk Panggang), 튀겨낸 농어를 새콤달콤한 소스에 버무린 이칸 시아캅 마삼 마니스(Ikan Siakap Masam Manis) 등이 유명하다.

주소 No. 29 Jalan Yap Kwan Seng 50450 Kuala Lumpur 전화 03-2161-3331 운영시간 월~금요일 12:00~15:00, 18:00~23:00 토·일요일 17:00~23:00 홈페이지 www.songketrestaurant.com



정통 북부  
인도 요리  
**베나레스** Benares

부킷빈탕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파크로열 1층에 있는 베나레스는 인도 북부의 정통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여유로운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릴에 구운 탄두리 치킨과 새우, 로브스터와 같은 다양한 해산물로 만든 인도식 전채요리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그밖에 다양한 스타일의 인도식 볶음밥인 비리야니, 난 등을 소스와 함께 먹는 방식은 인도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인도인 셰프가 직접 만든 홈 메이드 소스는 인도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

주소 Jalan Sultan Ismail 50520 Kuala Lumpur  
전화 03-2782-8305 운영시간 11:00~23:00  
홈페이지 www.parkroyalhotels.com



# Hotel Comparison

쇼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거점을 잘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알라룸푸르가 쇼핑객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쇼핑물 사이사이에 자리한 호텔들 덕분이다. 이 중 그랜드 밀레니엄과 노보텔 시티 센터는 쿠알라룸푸르 쇼핑 트렌드의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부킷빈탕 거리 한가운데 위치해 중간 중간 휴식이 필요한 쇼핑객들에게 최적의 거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 모던하고 화려한 분위기 그랜드 밀레니엄 Grand Millennium

5성급 호텔의 고급스러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은 부킷빈탕 거리에서도 트렌디한 쇼핑객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길

목인 파빌리온과 스타힐 갤러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쇼핑의 열기를 잠시 식히며 재충전을 하기에는 최고의 입지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전면적인 레노베이션을 마친 터라 객실이 넓고 깨끗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객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부킷빈탕 쇼핑 거리의 환상적인 뷰를 원한다면 예약 시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객실 내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소 160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전화 03-2117-4888



## 함리적이고 알뜰한 여행자를 위한 노보텔 시티 센터 Novotel City Centre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한 쇼핑객 중 알뜰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노보텔 시티 센터다. 4성급 호텔로 깔끔하고



실용적인 분위기가 특징. 단체 여행자보다는 나홀로 여행자나 자유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편이다. 그랜드 밀레니엄과 비교해 파빌리온, 스타힐 갤러리 등이 밀집해 있는 중심부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 그러나 파빌리온으로 바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로 단점을 커버했다. 또한 수리아 KLCC가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와도 그랜드 밀레니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것이 장점이다. 역시 객실 내 와이파이도 무료다.

주소 2 Jalan Kia Peng Kuala Lumpur 전화 03-2147-0888

## NIGHTSPOT

### 말레이시아의 잠 못 이루는 밤, 루나 바 Luna Bar

퍼시픽리젠스 호텔의 루나 바는 럭셔리한 추억을 선사하는 최고의 나이트 스폿이다. 공간의 고정관념을 깨 버리고 쿠알라룸푸르의 밤하늘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야경을 지붕으로 삼은 루나 바는 그 한가운데마저 폴장으로 만들고 물을 채워 시원함을 더했다. 아찔한 길이의 스커트와 킥힐로 한껏 맛을 내고 나타나 비범한(?) 춤 솜씨를 과시하는 여성을 보는 재미도 특별하다.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대는 허락된다. 단, 남자의 경우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은 출입이 제한되니 문 앞에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면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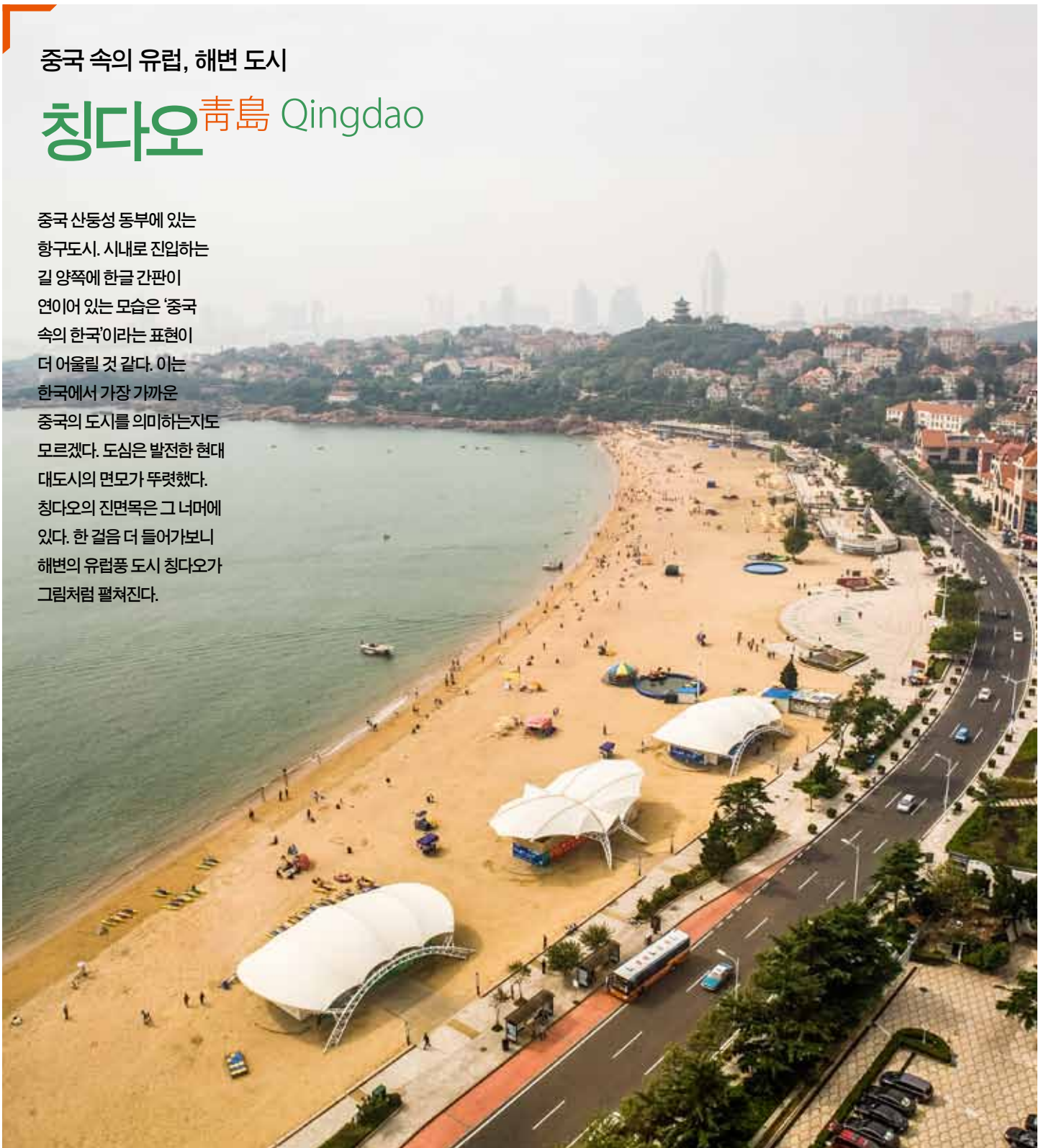


주소 KH Tower Jalan Punchak Off Jalan P.Ramlee, 50250 Kuala Lumpur 전화 03-2332-7777 운영시간 월~목요일 17:00~01:00 금·토요일 03:00까지 홈페이지 www.luna.my

중국 속의 유럽, 해변 도시

# 칭다오 靑島 Qingdao

중국 산둥성 동부에 있는  
항구도시. 시내로 진입하는  
길 양쪽에 한글 간판이  
연이어 있는 모습은 '중국  
속의 한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도심은 발전한 현대  
대도시의 면모가 뚜렷했다.  
칭다오의 진면목은 그 너머에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보니  
해변의 유럽풍 도시 칭다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 Old & New

칭다오는 1898년에 시작돼 불과 1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 가난한 어촌 마을이 독일의 지배와 유럽 열강의 영향을 받아 깜짝 놀랄 만큼 다국적인 모습으로 빠른 발전을 이룩했다. 여행할 만한 곳은 주로 구시가지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흔적인 붉은 지붕 양옥과 아담한 근대식 건축물이 많으며, 정감 있는 골목과 운치 있는 가로수 덕에 목적 없이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곳곳에 가게나 식당, 가판대 등이 있으니 거리를 기웃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독일이 남긴 흔적 영빈관 迎賓館**

말하자면 독일총독부 관저. 독일 옛 보루의 건축양식을 고스란히 살려 1905~1908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중세풍의 이국적인 풍채를 자랑한다. 독특한 외관과 오밀조밀한 내부 구조, 독일식의 오래된 가구와 실내 장식이 구경할 만하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천장이 높은 홀이 있고 맞은편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밑에 마련된 공간이 총독을 알현하려는 이들을 위한 대기석. 총독이 방문자를 몰래 살펴볼 수 있도록 대각선 방향의 돌출된 벽장식에 ‘엿보는 구멍’을 숨겨놓았다. 벽장식 중에 핑그린 얼굴의 결코 아름답지 않은 장식품이 종종 방문객을 의아하게 만든다. ‘원래는 웃는 얼굴이었는데, 공간이 뭐라고 하니까 우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주소 山東省青島市 龍山路24號 전화 0532-8288-9888 입장료 4~10월 15위안, 겨울 10위안



**최상의 뷰포인트 소어산공원 小魚山公園**

‘작은 물고기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공원은 굉장한 관광 명소는 아니다. 다만, 동산을 산책하는 느낌으로 올라가보면 칭다오 전경을 360도 내려다보는 최고의 뷰가 펼쳐진다. 붉은 지붕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고색창연한 구도시 지역. 그리고 수직으로 솟은 회색 빌딩이 나란히 모인 신도시 지역이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달 모양으로 해변이 길게 펼쳐진 모습, 이것이 칭다오다. 내려다본 풍경이 매력적인 이 도시를 바라보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킬 것. 칭다오가 어촌이던 시절 생선을 말리던 이곳에는 독일군이 중국 정부에 대해 포대를 세운 흔적이 남아 있으며, 중국 전통 양식의 팔각루가 우뚝 솟아 있다. 참고로 사오위 산에서 바라다보이는 언덕 위의 요상스럽게 생긴 등그런 건물은 칭다오를 조망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인 ‘신호대’다.

주소 市南区福山路24號 전화 86-532-8286-5645 운영시간 겨울 08:00~17:00 여름 07:30~17:30 입장료 15위안



**칭다오의 여유 오사광장 五四廣場**

칭다오와 관련된 5·4운동을 기념한 광장. 칭다오의 상징 ‘5월의 바람’ 조각상(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지어 바람도 빨간색으로 표현했다. 역동적인 나선 형상은 회오리바람을 표현한 것)과 함께, 탁 트인 바닷가 정취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지는 칭다오 특유의 풍경, 들뜬 여행자의 두리번거리는 모습, 칭다오 주민들의 느긋한 여유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해변을 따라 모조 진주와 조개를 이용한 액세서리 가게가 모여 있어 자신도 모르게 기웃거리게 된다. 바로 뒤쪽의 양옥은 임대 펜션. 1박에 300위안 정도로 묵을 수 있다.

**항해를 유람하는 방법**

오사광장 앞의 해변 길을 쪽 걸어가면 부두가 보이고, 유람선 승강장이 나타난다. 8가지 루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칭다오 해안선을 따라 주요 해변이나 섬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여러 노선으로 마련되어 있다. 라오산 요트 경기장의 마리나, 인하이 국제 요트 클럽, 앞바다의 섬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전화 86-532-8389-9066 요금 루트에 따라 다르나 30~100위안 정도





**바다를 향한 산책 해안 산책로와 팔대관 八大关**

칭다오를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해변을 산책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40.6k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는 여러 개의 비치와 공원, 잔차오를 포함해 스라오런(石老人)까지 이어지는 긴 거리를 모두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목재로 데크와 난간을 깨끗하게 가꾸어놓았으며, 군데군데 벤치와 조명 장식, 산책로에 대한 정보 등을 배치해두어 쉬엄쉬엄 걷기도 좋다. 해안 산책로 중 제3해변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만국건축박물관'이 나온다. 24개국의 유럽 열강이 칭다오에 남긴 300여 개의 유럽 건축물인데 단풍나무, 꽃나무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한다.



**최초의 부두 잔교 栈桥**

1891년부터 건설된 칭다오 최초의 부두로, 지금은 대표적인 명소. 바다로 뻗어나간 440m의 다리를 걸어가면 끝에 '회란각'이라고 불리는 팔각 누각이 있다. 누각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며 바닷바람 쐬다면 칭다오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하게 된다. 양쪽의 개펄에서는 조개나 작은 게, 새우 등을 잡을 수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작은 양동이를 옆에 두고 꾸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도 이색적인 풍경.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기도 하다.

주소 山东省青岛市太平路2号 전화 0532-8288-4548 입장료 잔차오 공원은 무료

**깨끗한 맥주 맛 칭다오 맥주박물관 青岛啤酒博物馆**

칭다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칭다오 맥주(Tsingtao Beer)'. 맥주 종주국 독일의 기술과 칭다오의 물이 만들어낸 그 맛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가 많다. 붉은 벽돌과 둥근 아치, 격자창을 가진 건물 안, 칭다오 맥주박물관은 100년 역사의 칭다오 맥주를 속속들이 살펴보거나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이들의 눈, 코, 귀, 입을 풀 가동시키는 곳이다. 우선 100년 역사에 관한 전시물을 슬쩍 둘러본 뒤,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실제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거대한 기구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간 다양한 칭다오 맥주를 만나고 맛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대적인 공간이 풍기는 아련한 여운, 정원 쪽의 호젓함과 시음장에 흐르는 왓지떨친 활기가 만들어내는 대조적인 경험은 마치 독일 가곡과 월드 팝을 연달아 들은 듯한 느낌이다.



주소 山东省青岛市北区登州路56号 전화 86-532-8383-3437 운영시간 08:30~16:30 홈페이지 www.tsingtaomuseum.com



**칭다오에서 쇼핑하기**

**타이둥 台东**

타이둥 거리는 칭다오의 생생한 활기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옷집, 레스토랑, 카페, 점집, 헤어 숍, 약국 등이 쭉 몰려 있는 쇼핑과 만남의 거리. 밤에 오픈하는 가게도 많아 나이트 라이프를 경험해보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큰 쇼핑몰도 모여 있지만 쇼핑이 목적이 아니라면 아의를 걷는 게 좋다. 재미있는 디스플레이나 호객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풍물 덕분에 쇼핑할 게 없어도 심심치 않다.

쇼핑물 | 과자나 선물을 사기 좋은 마트로 일본계의 자스커(佳世客) 쇼핑센터가 있다. 이쪽저쪽에서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더러 들리는 이곳은 슈퍼마켓을 비롯해 패션, 잡화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며, 간단하게 요기 할 수 있는 푸드코트도 마련되어 있다.

주소 山东省青岛市香港中路72号 전화 86-532-8571-9630

하이엔드 | 칭다오 신시가지의 가장 중심적인 도로인 '홍콩중루(香港中路)'. 은행과 사무실, 고급 호텔 사이에서 칭다오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양광바이회(阳光百货·양광백화점)를 찾을 수 있다. 작지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쇼핑 공간으로 꼽힌다.

주소 山东省青岛市太平路38号 전화 86-532-8667-7166

## 칭다오맥주의 모든 것

처음 맥주가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서민은 입도 못 대보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칭다오맥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지금은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패키지가 다르고,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이 등장해 가짓수가 150여 종류에 이른다.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이를 마시면 장수한다는 칭다오의 광천수를 사용하고, 100일 동안 자연 상태로 숙성시킨 맥주들을 차례로 맛볼 수 있다면 칭다오 여행이 더 행복할 것이다.



### 칭다오 라거 Tsingtao Lager

상큼하고 살짝 몰트 향이 나며, 견과류의 달콤함이 느껴진다. 칭다오맥주 양조장에서 직접 발효시킨 특별한 효모와 엄격한 재료 선정을 통해 완성된 맛. 매콤하고 진한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칭다오맥주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 칭다오 순생맥주 Tsingtao Draft

효모의 발효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좋지 않은 세균의 발생을 극소화한 세계적인 기술과 시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맥주. 저온 여과 공법을 적용해 고유의 순수한 맛을 최대한 살렸으며, 스시 같은 가볍고 깔끔한 요리와 어울린다.

### 후안동 스포츠 맥주 Tsingtao Huandong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20세 초반의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출시한 맥주. 영양가는 높지만 칼로리는 적어 건강에 좋고 패셔너블한 맥주가 후안동의 모토다. 실제로 전통 라거에 비해 탄수화물이 반 정도에 당분도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타우린과 아연 등이 피로를 풀어주고 개운한 기분을 한층 높여준다.

### 스타우트 맥주 Tsingtao Stout

칭다오 흑맥주는 개성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들이나 맥주의 깊고 진한 맛을 음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고 인기! 몰트를 볶아낸 깊고 진한 맛과 살짝 감도는 달콤함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 함유량이 많고.

### 무알코올 맥주 Alcohol-Free

맥주를 마실 일은 많은데, 술을 잘 못 마시는 이들이나 건강을 중시하는 이들은 무알코올 칭다오맥주에 주목하자. 이 지역에서 재배한 홉과 품질 좋은 보리, 라오산의 광천수로 빚어낸 칭다오맥주의 장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알코올을 제거한 맥주다.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은 풍부하다.



## 칭다오맥주의 근원 라오산 崂山

칭다오 시내에서 차로 30~40분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가봐야 할 코스가 있다. '옛날 진시황께서 불로장생 약을 찾아오라 파견했던 사신도 들러 갔다'는 라오산. 태산보다 명성 높다는 라오산은 중국 도교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당나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2000년 역사의 도교 사원인 타이칭궁(太清宮·태청궁)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해안선 쪽에 자리 잡은 산 중에서는 가장 높으며(1133m), 돌산이라 유난히 산세가 멋지고 풍광이 아름다운 라오산에는 중간까지 차를 타고 올라간 뒤 케이블카나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3가지 등산 코스가 인기. 라오산의 물은 워낙 맑고 몸에 좋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칭다오맥주 맛의 근원이 된 광천수. 타이칭궁 안에서는 라오산의 유명한 녹차와 비범한 기운이 느껴지는 천년 고목들을 만나볼 수 있다.

주소 青岛市崂山区梅岭路29号 전화 86-532-8889-8866 홈페이지 www.qdlaoshan.cn



### 맥주와 함께하는 나이트라이프

칭다오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각각 바 거리가 몇 군데 있다. 맥주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바 거리도 그중 하나. 낮에는 한산하지만, 저녁이 되면 현지인들과 여행자가 뒤섞여 칭다오맥주를 즐기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맥주박물관의 마지막 코스를 마치고 한 걸음 나오면 길 건너편으로 바가 즐비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바다에 면한 칭다오는 해산물도 풍부하다. 맥주를 마시면서 특히 주목할 것이 조개! 야시장에 가면 조개를 지글지글 볶아내는 집이 많은데, 바로 조개 요리랑 칭다오맥주 한잔이 소문난 별미다.





두 가지 테마로 떠나다

## Classic and Modern Bangkok

바쁜 일상에 지친 여행자에게 진정한 휴식을 제공하는 곳. 처음 몇 번은 어딜 가나 볼 것 많은 이 도시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런 이후 찾은 Bangkok은 그저 답습하는 기분일까. 뭐, 나쁘지 않다. 가격 대비 시설 좋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타이 마사지와 발 마사지를 번갈아가며 아침저녁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 그것뿐이겠는가. 다양한 맛집을 골라 찾아다니는 재미까지 있다.



# Classic

## 몇 번을 가도 질리는 않는 그곳

방콕은 혼자 또는 동행인에 따라 여행 테마가 결정된다. 혼자일 때는 말 그대로 방콕을 답습한다고 하겠다. 호텔 패키지를 이용하듯, 제대로 된 호텔 놀이에 빠진다. 마냥 게으름을 피우다가 호텔 인근의 식당들을 섭렵한다.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방콕은 미식의 천국이 아닌가. '비싼 항공권을 끊고 굳이 방콕에 갈 이유가 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한 '방콕'은 이런 여유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은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도 해본다. 여러 번 온 도시지만 누군가에게 처음 소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몇 번 기본 관광지부터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포는 늘 여행자로 늘 봄비는 곳이다. 두 곳 모두 짧은 바지나 치마 차림으로는 입장할 수 없다.

찾아가는 법 차오프라야 강 서쪽에 위치. 가까운 BTS역이 없기 때문에 주로 택시로 접근해야 한다. 택시 기사에게 '그랜드팔레스'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 태국어 '빠이 왓프라깨우'를 외워두는 게 좋다. 전화 02-623-5500 운영시간 08:30~16:30(티켓 구입은 15:30까지) 입장료 왕궁 500바트 왓포 200바트



자유여행자의 천국 카오산로드 Khao San Road

메인 도로는 300m 남짓 걸어가다보면 어느새 길이 끝나버리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메인 도로 중간 중간에 위치한 작은 골목들과 거기서 또 이어지는 길들까지, 구석구석 누비다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 많은 여행자가 카오산로드의 진정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는 밤이 돼야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낮에 찾아도 카오산로드의 진정한 여유를 오롯이 만끽할 수 있다. 일렬로 늘어선 다양한 카페에선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고, 배가 출출해지면 카오산로드식 빠타이(Patthai)를 먹으면 된다. 가격은 50바트 선. 우리네 포장마차 식이라고 서서 먹는 불편함은 없다. 일부 포장마차에선 간이 의자에 탁자까지 제공하는 센스를 발휘하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니, 배를 채웠으면 또 길가에서 파는 시원한 열대과일 음료를 사 먹어도 좋고, 야외 베드에 누워 즉석 발 마사지를 받아도 좋다.

찾아가는 법 BTS노선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차 막히는 수쿰뎃 거리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멀지만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요금 150~200바트



무료 무에타이 관람 채널 7 스타디움 Channel Seven Stadium

무에타이는 1000년의 세월을 이어온 태국의 격투 기술. 평소 격투기에 열광하는 여행자라면, 한 번쯤은 TV가 아닌 링 바로 아래에서 생생한 경기를 관람하고 싶게 마련. 하지만 주말에만 열리기 때문에 경기 일정을 잘 살펴야 하며, 입장료도 상당히 비싼 편. 방콕 여행 중 꼭 무에타이를 보고 싶으나 비싼 가격이 부담된다면, 이외의 이벤트 경기가 있으니 일정을 검색해보자.

찾아가는 법 BTS 모치(Mo Chit) 역에서 하차 후 택시로 채널 세븐 스타디움을 찾아가면 된다. 5분 거리이며 택시요금 50바트 선.

### More Info

롭피니 경기장과 왓담넨 경기장에서는 주말에 경기가 열리지만 외국 여행자에게는 림사이드 좌석에 한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가격도 2000바트. 상당히 비싼 가격에 발길을 돌리는 여행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터. 하지만 무에타이를 무료로 관람하는 방법이 있으니 매주 일요일 오후를 놓치지 말자. 채널 7의 방송국 스튜디오가 일요일 오후 무에타이 경기장으로 변신하는 것.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가 시작되며, 연이어 여섯 경기가 펼쳐진다. TV 중계 때문인지 입장료가 없는 것이 여행자에게겐 포기할 수 없는 보너스. 게다가 외국인에게는 관람석도 따로 지정해 준다.

# Modern

## 스타일리시 방콕의 강남 스타일

통로는 엄밀히 따지면 수쿰윗 로드에는 포함되는 곳이지만 동부 지역의 중심가로 통로 또는 에마카이 지역이라 불린다. 영어 표기도 'Thong Lo' 또는 'Thonglor' 두 가지.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의 상설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대리점들, 아기자기한 편집 숍과 이 거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종합 쇼핑몰까지. 무엇보다 통로의 최고 매력은 한 거리에서 세계의 모든 음식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곧게 뻗은 오른쪽 방향의 거리에선 다채로운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 타이 음식점부터 프렌치 정통 코스 요리, 브런치를 먹기 좋은 트렌디한 레스토랑, 향이 좋은 카페와 와인 바까지!

## 방콕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 통로 Thong Lo

방콕의 가장 핫한 지역은 지금도 시암을 시작으로 한 나나(Nana), 아속(Asok), 프롬퐁(Phrom Phong) 인근이다. 수많은 백화점과 고급 식당, 5성급 호텔까지 준비하게 늘어난 수쿰윗 거리. 자주 와서 그런가. 편안한 나머지 예의 그 익숙함을 즐기게 된다. 수쿰윗 인근의 호텔에서 체류하며 아속 역 인근의 수쿰윗 플라자의 한인타운 식당에서 한식을 먹은 후엔, 터미널 21의 거대한 종합 쇼핑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딱히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했던 것 같다. 한데 이번 여정에선 달랐다. 오랜만에 마땅히 들러야 할 곳을 둘러보면서 왠지 모르게 새로운 무언가가 절실했던 느낌이랄까. 그러던 중 최근 가장 핫한 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도 멀지도 않은 곳에 있다니. 태국 부자들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이 들어서고 있고,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 아파트들도 막 생겨나고 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가로수길처럼 고급 의상실과 웨딩 숍, 뷰티 숍들이 남다른 전략을 내세우며 열심히 홍보하고 있단다. 통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감각적인 레스토랑이 이 거리에 다 밀집되어 있다는 것! 흔하게 볼 수 있는 맛집이 아니다. 하나같이 예술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레스토랑에다 여유로운 식사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로 가득한 방콕이 맞나 싶을 정도. 카오산로드와는 180도 다른 곳이란 결론이다.

**찾아가는 법** BTS 통로(Thong Lo) 역 3번 출구로 나와 수쿰윗 큰 도로를 따라 50m만 걸다보면 오른쪽으로 통로 거리가 나온다. 그러곤 건널목을 건너 후 거리 오른쪽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왼쪽 길보단 상대적으로 오른쪽 거리에 볼거리가 많다. 100여 m만 걸다보면 한식과 일식을 함께 파는 '서울(SEOUL)'이란 식당이 나온다. 그 지점부터 1km 정도인 통로 경찰서까지 걷는다면 통로의 진면목을 70% 정도 본 셈이다. 통로 경찰서 앞의 건널목을 통해 왼쪽 길로 건너 후 다시 길을 따라 내려오는 식으로 여행하면 된다. 천천히 걷는다면 반나절은 걸리지만 최소 3시간 이상을 잡아야 한다.



# It's New Thong Lo Road Brunch Collection 7



## 01 타이 음식 전문점 시파 SEE FAH



전통 타이 음식 전문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태국 전역에 체인점이 있는데, 통로에도 어김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메뉴판에는 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음식 사진이 있어 쉽게 주문할 수 있다. 애피타이저와 다양한 라이스, 그리고 누들, 메인 요리로 구성돼 있는데, 경제적인 가격으로 손쉽게 주문하려면 세트 메뉴가 좋다. 화이트 테마로 꾸민 식당 인테리어

가 상당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곳.

주소 90 Fifty Fifth Bldg., Soi Thonglor 2, Sukhumvit 55 Rd 전화 02-390-2721 운영시간 10:00~22:00 가격 3코스 420바트, 도시락 세트 195바트

## 02 위생적인 길가 국수 로스니움 ros niyom



방콕 길거리에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이 야의 식당이 즐비하다. 하지만 여행자 중 몇 명이나 이 로컬 음식을 먹을까 의문이 생긴다. '위생상 안 먹는다'는 여행자도 있지만, 어쩌면 그 환경이 낯설기 때문이 아닐까. 타이 누들의 그 맛이 궁금하다면 로스니움을 찾으면 된다. 닭고기, 돼지고기, 새우 등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타이 전통 국수의 메뉴만도 어렵잡아 30가지가 훌쩍 넘는다. 가격도 대부분 99바트. 야외 테라스에서 통로 거리를 벗삼아 위생적인 길가 국수를 맛보는 건 어떨까. 통로에서만큼은 방콕의 매연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으니.

주소 Soi Thong Lo 2, Soi 55, Sukhumvit Rd 전화 02-381-1524 운영시간 10:00~22:00

## 03 이탈리아인 브런치 뷔페 베코피노 Beccofino



고철 같은 느낌의 건물 외관이 독특하다.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은 식당, 오른쪽은 와인 바로 구분된다. 이 레스토랑의 특색은 빈티지 스타일로 남다른 전락이 군데군데에서 엿보인다. 하지만 메뉴에서만큼은 정통과 퀄리티를 자랑하는데 특히 얇은 피자를 구울 때는 나무 소재의 오븐에서 굽는다는 후문. 남다른 감각의 이탈리아 요리로 마음껏 즐기면 된다. 예약은 필수

주소 146 Thonglo 4, Sukhumvit 55 전화 02-392-1881~2 운영시간 브런치 타임 11:30~14:30 홈페이지 www.beccofino.co.th

## 04 트렌디 타이 음식 동덩다이 DOONG DENG DAI



태국의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통로 타운센터 안에 에다 식당을 열었다. 타이 전통 누들이 전문이며, 타이식 꼬치 메뉴와 디저트 등도 인기가 높다. 식당은 실내외로 구분되는데 야외 소풍물이라 크게 덥지도 않으니 이왕이면 실외 테이블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것이 좋다.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메뉴와 타이식 돼지고기 요리 그리고 꼬치 등을 주문하면 탁월한 선택. 직원들도 친절하고 맛도 깔끔하다.

주소 Siam Future Town Center Thonglor Soi 4 Soi Sukhumvit 55 전화 02-392-1417 운영시간 10:00~22:00 가격 타이누들 60~80바트, 호주산 소고기 요리 135~210바트, 디저트 45~70바트

## 05 푸드 앤드 스위트 카페 아이베리 iberry



아이스크림과 베리의 합성어. 젊은 여행자에게 안성맞춤 브런치 식당. 감각적인 메뉴와 다양한 음료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하면 여행의 피곤이 한순간에 달아난다. 입구에 들어서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왼쪽은 제대로 된 브런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브런치 중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엄선된 메뉴가 있으니 체크할 것. 그리고 우측은 케이크와 커피, 다양한 열대과일 음료,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티라미수, 일본의 허브 아이스크림, 미국의 쿠키 앤드 크림 등 세계의 아이스크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브런치보다 디저트를 먹기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

찾아가는 법 통로 타운 중앙에 위치 전화 02-381-3274 운영시간 월~목요일 10:30~23:00 금~토요일 10:30~24:00 홈페이지 www.iberryhomemade.com

## 06 사우스 타이의 맛 푸켓타운 PHUKET TOWN



규모는 작지만 남다른 레시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푸켓이라는 이름은 상징적인 것이고, 태국 남쪽 지방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태국 남쪽 지방의 음식은 향이 아주 강하고 매콤한 소스가 특징인데, 평소 타이 푸드를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사장과 스태프의 영어 실력이 좋아 메뉴 선택에 따른 설명을 친절히 해주고 있다. 엔틱 테이블과 소품들을 통해 태국 전통을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다.

주소 160/8 Soi Thong-lor 6, Sukumvit 55 rd 전화 02-714-9402 운영시간 10:30 ~ 22:00

## 07 시그니처 브런치 멜로 MELLOW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먹겠다면 가장 먼저 추천하고픈 곳이다. 통로 거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레스토랑은 현지 언론에도 자주 소개될 정도로 여러모로 정평이 나 있다. 신선한 식재료로 감각적인 메뉴를 선보이는 이곳에서는 라이브 재즈 공연도 펼쳐져 방콕이 아닌 뉴욕의 소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직원들의 에티튜드와 공연 수준, 그리고 맛과 분위기까지 최고. 연인과 브런치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주소 Penny's Balcony Unit 1,2,3 522/3 Thonglor 16 전화 02-382-0065 운영시간 11:00~01:00





자전거 바퀴로 만나는 세상

## Round to the World!

힘든 여행은 호불호가 갈린다. 자전거에 의지해 며칠씩 여행하기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체력도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때로는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을, 때로는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드넓은 평야를 바라보며 달리는 모습을. 그리고 컷가에 기분 좋은 바람이 스치는 때와, 한바탕 땀을 흘린 후 꿀맛 같은 음료수를 마시는 순간을. 힘든 여행은 그만큼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되는 자전거 여행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자전거 여행>에 나오는 말이다. 자전거 여행이라고 해봤자 경주 어딘가에서 고물 자전거 빌려서너 시간 타고 다닌 경험이 전부이지만, 이것이 자전거 여행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감히 말하고 싶다. 여행의 수단일 뿐인 ‘길’과 ‘이동시간’이 여행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다는 것, 이동시간마저 적당히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만끽하게 된다는 것 말이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내가 직접 길을 찾으며 달리고, 가는 도중 마음에 드는 풍경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 차를 타고 달리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모든 풍경이 느리게 흘러가고, 빨리 달릴 땐 결코 볼 수 없었을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 된다. 비록 나는 느리지만 여행은 그만큼 풍성해진다.

언제나 빠르고 바쁘지만 한 우리네 인생에 정말 필요한 쉼표는 이런 여유와 느낌의 미학이 아니었을까. 세계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여행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매력에도 불과하고,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자전거 여행은 힘들고, 루트를 짜기도 쉽지 않으며,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을 것 같다는 편견 때문이다. 자전거 여행에 대한 로망은 있지만 어디를 가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아시아 5곳의 추천 자전거 여행지.



#### 자전거 여행, 준비를 챙기기

- ✦ 자전거 어디서든 잘 달릴 수 있는 튼튼한 프레임과 굵은 바퀴를 지닌 자전거가 좋다. 내 몸에 맞는 자전거 사이즈를 선택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직접 타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전거는 전용 케이스에 넣어 이동하고, 하드 케이스에 앞바퀴와 뒷바퀴, 핸들, 페달, 안장을 분리해 포장하면 파손될 우려가 적다.
- ✦ 헬멧 어떤 사고가 나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헬멧을 꼭 준비한다. 만약 여름에 자전거 여행을 한다면 헤파중을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고 가벼운 헬멧을 선택한다.
- ✦ 고글 눈개로 날아오는 날벌레나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고글은 필수적이다.
- ✦ 전조등과 후미등 야간 라이딩에 대비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준비한다.
- ✦ 물 체내 온도가 올라가면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온 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탄산음료는 금물이다.
- ✦ 선크림 자외선에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준비해 꼼꼼히 발라준다.
- ✦ 신분증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신분증이나 비스ID 카드(헬액형, 비상연락처 등을 표기)를 챙겨간다.

## THAILAND



### 태국의 과거 유산을 만나는 길 **아유타야** Ayutthaya

14세기, 당시 태국을 통치하던 시암 왕국은 지금의 방콕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 수도 아유타야를 건설했다. 이후 18세기까지 경제적,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아유타야.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탓에 침략과 약탈이 지속돼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지만, 30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번영의 흔적은 남아 있다. 수많은 사람의 염원이 서려 있는 아름다운 절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수도를 방위했던 성벽, 왕이 살았던 궁전 등은 여전히 이 도시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를 느끼게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도시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곳곳에서 자전거 여행자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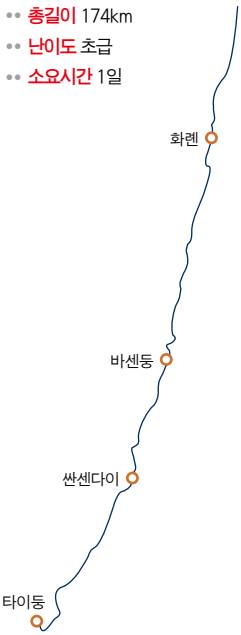
#### Don't Miss Here!

**왓 프라 마하탓** Wat Phra Mahathat  
1380년대 도성의 중심사원으로 나레수엔 왕에 의해 세워졌다. 아유타야에 남아 있는 프랑(크메르 양식으로 건축된 탑)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가운데의 프랑은 높이가 50m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은 심하게 파괴되었지만 숲 곳곳에 프랑과 불당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복원 작업을 거쳤으며, 당시 탑이 있었던 자리에서 많은 금불상과 보물 상자가 쏟아져 나왔다.

**왓 프라 시 산펫** Wat Phra Si Sanphet  
아유타야에 남아 있는 사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사원이다. 사원의 중앙부에 스리랑카 건축의 영향을 받은 하얀색의 파고다 3기가 남아 있다. 파고다 내부에는 역대 왕들의 유골과 의복, 불상을 넣은 상자가 묻혀 있다.

# TAIWAN

- 총길이 174km
- 난이도 초급
- 소요시간 1일



## 한적한 해안도로의 매력 타이둥 Taichung

야자수와 쪽빛 바다는 있지만 도시의 북적거림과 바쁜 일상은 없다. 언제나 한가롭고 유유자적한 타이둥의 자전거 여행은 타이둥에서 화롄까지 나 있는 화동해안 도로를 따라 이어진다. 해안도로를 달리다보면 한쪽으로는 험한 산이, 다른 한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자전거의 천국이라 불리는 나라답게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여행하기에 불편함은 거의 없다.



### ☑ Don't Miss Here!

#### 싼센다이 三仙臺

바닷가 옆으로 두 개의 기암괴석 봉우리가 솟아오른 싼센다이는 세 명의 신선이 놀러온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몽돌이 가득 깔린 해변으로 밀물이 밀려들어오면 반짝이는 바다와 바위가 어우러져 사뭇 아름다운 광경이 만들어진다. 썰물 때는 걸어서 싼센다이까지 갈 수 있다.

#### 바센동 八仙洞

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바위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동굴마다 다양한 신을 새긴 조각이 모셔져 있는데, 타이완 사람들이 모시는 각종 신이라고. 경치가 좋아 예로부터 신선들이 노닐던 장소라 전해지며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신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 Editor's Comment

전역에 걸쳐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타이완은 그야말로 자전거 여행의 천국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여행자 전용 홈페이지도 있는데, 전국에 걸쳐 있는 자전거 도로와 타이완 자전거 여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www.bike2taiwan.net](http://www.bike2taiwan.net)

# JAPAN



- 총길이 20.4km
- 난이도 초급
- 소요시간 1일

## 맑은 듯 다른 두 올레길 가고시마 Kagoshima

규슈 올레길, 이름부터 낯익다. 짐작했듯이 제주 올레길을 본떠 만든 트레킹 코스다. 규슈의 웅대한 자연환경과 곳곳에서 솟아나는 온천, 고유의 문화와 역사까지 두루 담은 8개 코스 등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제주의 풍경과는 또 다른 멋을 지녀 일본인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단다. 난데없이 웬 트레킹 코스냐고 묻는다면 모르는 소리. 최근 올레길마다 자전거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가고시마 올레길 코스는 특히 자전거 여행을 적극 권장한다니 가불 만하지 않은가.

### ☑ Don't Miss Here!

#### JR 니시오야마 역 JR西大山駅

일본 최남단 역인 니시오야마 역은 가이몬다케 산의 웅장한 모습을 병풍 삼아 한적하게 자리한 무인 역이다. 노란 우체통과 여행객들이 흔적이 담긴 '추억 노트'가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역 앞에 마련된 관광 안내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고, 이곳에 다녀갔다는 증명서도 구입 가능하다.

#### 나가사키바나 長崎鼻

사쓰마 반도의 최남단에 자리한 곳으로 여름이 되면 바다거북의 산란지로 변한다. 거북과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다. 한 사내가 거북을 따라 용궁에 가서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육지로 돌아와 용궁 공주로부터 '다마테바코(玉手箱)'라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여는 순간 할아버지가 되어 있더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입구에 보이는 신사가 바로 용궁 공주를 모신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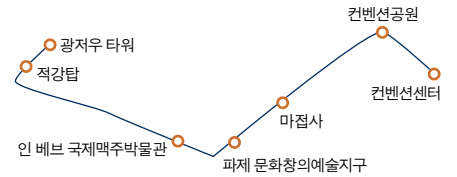
# CHINA



## 건축·문화·예술이 깃든 그린로드 광저우 Guangzhou

‘광저우’ 하면 중국 최대의 무역 도시답게 화려한 고층 빌딩 숲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밖에 이 도시가 지닌 수려한 자연경관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터. 사실 광저우는 연중 온화한 아열대 기후다. 그 덕에 활발한 교역은 물론 미식,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 최신식 현대 도시와 아열대의 싱그러운 그린로드를 두 바퀴로 누비다보면 광저우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만다. 날씨 또한 라이딩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자, 출발은 광저우의 랜드마크 ‘광저우 타워’부터다.

- 총길이 30km
- 난이도 초급
- 소요시간 1일



### Don't Miss Here!

#### 광저우타워 Canton Tower

해심사 시민광장과 주강신도시에서 바라보면 강 너머로 우뚝 솟은 타워가 보인다. 중간 높이에서 한 번 틀어 올린 외관이 묘한 리듬감을 주는 건축물이다. 이곳의 랜드마크, 광저우타워(610m)다. 캔턴타워가 정식 명칭이며, 전망대에 올라 도시 구석구석을 조망하는 기분이 짜릿하다.

#### 인베브 In Bev 국제맥주박물관

5000년이 넘는 맥주의 역사를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명소다. 광저우 맥주 제조사 주강과 벨기에 맥주 제조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가 합작해 만들었다.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림을 경험할 수 있는 ‘드랑큰 통로(醉漢廊)’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 Editor's Comment

여행에서 맛있는 요리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특히 광저우라면 말이다. 중국의 4대 요리로 꼽히는 광동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계적인 향구도시답게 여러 나라의 요리법과 재료가 섞여 이곳만의 특별한 음식 문화가 탄생했다. 자전거 여행 코스 근처에 가볼 만한 레스토랑이 많다.

# KOREA



## 낭만 가득한 섬 라이딩 군산 Gunsan

군산시의 자전거 사랑은 현재 100℃다. 도시 곳곳에 자전거 코스를 30개나 만들고, 자전거 여행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만하면 ‘자전거 도시, 군산’이란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특히 선유도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장자도와 대장도, 무녀도를 이은 다리를 이용해 섬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코스다. 어느 방향을 택하더라도 바다가 따라붙어 라이딩하는 맛이 그만이다. 섬사람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니 안전도 만점이다.

#### Editor's Comment

코스는 선유도 선착장에서 시작해 대장도 방향과 몽돌해수욕장 방향, 무녀도 방향 총 3가지다.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 코스로는 조금 빠듯하다. 1박2일 일정을 추천하며, 숙소는 선유도선착장 인근의 민박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투숙객에게는 자전거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주시니 일석이조다.

### Don't Miss Here!

#### 망주봉 望主峰

선유도 선착장에 내려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거대한 2개의 바위산. 바로 이곳의 명물인 망주봉이다.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오랜 옛날 간신들의 모함으로 귀양 온 한 신하가 있었는데,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만 까망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후로 신하가 매일같이 바위산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망주봉’이라 불리게 됐다. 비가 오는 날이면 신하의 슬픔을 전하기라도 하듯 바위산 위로 일곱 줄기의 폭포가 흘러내린다.

#### 갯벌체험장

썰물 때 갯벌에 소금을 뿌려두면 맛조개가 빠죽 고개를 내민다. 반쯤 올라왔을 때 짚싸게 잡아채는 게 요령이다. 바지락과 모시조개를 캐거나 소리를 쫓기도 하고, 농게와 달랑게를 잡을 수 있다. 어른에게 싱싱한 갯것을 잡아 바로 요리해 먹는 재미가 있고, 아이들에게 자연을 놀이터 삼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더없이 좋다. 선유도해수욕장 양 끝 갯벌이 썰 것이 많다.



# 12 December 2013

## Festival Calenda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1월 말~12월 초  
**자카르타 국제영화제**  
장소 자카르타 전역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제 영화 축제, 자카르타 국제영화제(Jakar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비영리단체 자카르타 영화인 사단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영화제는 매년 6만여 명의 관객이 찾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1988년 인도네시아 출신의 영화제작자 샹티 하마인과 나타차 데 빌러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만든 영화제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영화제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의 지방 도시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제작된 다양한 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다.



말레이시아 | 11월 16일~2014년 1월 5일  
**말레이시아 이어 앤드 세일 축제**  
장소 말레이시아 전역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펼쳐지는 말레이시아의 3대 세일 중 하나.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부터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까지 시내 곳곳의 매장이 세일에 돌입,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1년에 두 번 있는 명품 브랜드의 할인 기간과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구매량이 적은 겨울 아이템을 노릴 수 있어 쇼핑러들에게 더없이 좋은 쇼핑 시기다. 패션, 뷰티, 주얼리는 물론 사무용품, IT제품까지 면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일본, 나가사키 | 12월 22일~12월 25일  
**글로버가든 윈터 페스티벌 2013** 장소 나가사키 글로버가든

일본 속 작은 유럽, 글로버가든(Glover Garden). 영국 출신의 대사인 토머스 블레이크 글로버(Thomas Blake Glover)의 옛 저택을 비롯해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와 서양식 건축물이 자리한 이곳은 일본의 근대화 역사를 볼 수 있는 나가사키의 대표 관광 명소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180도 변신한다. 반짝이는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윈터 페스티벌이 열린다. 다가올 한 해의 소원을 쓰고 불을 밝히는 로맨틱한 촛불 이벤트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야경을 보며 감미로운 캐럴송을 듣고 싶다면 누구라도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 것이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되니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그만이다.



한국, 포항  
12월 31일~2014년 1월 1일  
**제16회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제**  
장소 포항시 호미곶해맞이광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 호미곶에서 16년째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일찍이 고산 김정호 선생은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호미곶을 일곱 번이나 답사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고 했다. 현재도 연말이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모여든 해맞이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호미곶 해맞이공원 앞바다에 설치된 '상생의 손'이 눈길을 끄는데, 거대한 손 모양의 조형물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테마별 체험 행사가 열려 새해 일출과 함께 새로운 재미가 더해진다.



한국, 강릉  
12월 31일~2014년 1월 1일  
**경포해돋이축제**  
장소 경포 해변

정동진, 속초, 울산 등과 함께 동해안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 손꼽히는 강릉 경포. 매년 12월 31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해맞이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올해도 새해를 기원하는 해돋이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월 31일에는 전야제의 대미를 장식할 화려한 불꽃놀이가 마련되고 새해 첫날에는 수평선 위로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진또배기 소원빌기가 열린다.



한국, 부산  
12월 31일~2014년 1월 1일  
**2014 해맞이 부산축제**  
장소 용두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2013년 계사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는 '2014년 해맞이 부산축제'가 12월 31일 용두산공원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1999년 새천년문화행사로 처음 개최된 후 20년 넘게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월 31일 밤에는 용두산공원 종각에서 시민의 종 타 종식을 시작으로 각종 축하 공연이 열리고, 1월 1일 오전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해맞이 공연과 소망풍선 날리기 등 일출 행사가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01,02 January, February 2014



일본, 후쿠오카 | 1월 3일  
**다마세세리 축제**  
장소 후쿠오카현 히가시구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역사 깊은 신사 하코자키구(筥崎宮). 올해의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연례행사 다마세세리 축제(玉取祭り, 玉取祭)가 매년 1월 3일 하코자키구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구슬을 씻는 의식(玉洗式)으로 축제가 시작되는데, 구슬을 만지면 악행이 떠나고 행운이 찾아온다고 전해져 참가자들은 저마다 구슬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다. 살바 차림의 남성 200여 명이 육지 팀과 바닷가 팀으로 나뉘어 구슬(다마)을 빼앗는데, 육지 팀이 이기면 풍작을, 바다 팀이 이기면 풍어를 의미한다. 2개의 구슬이 본궁에 옮겨지면 축제도 끝이 난다.



말레이시아 | 1월 중순 ~ 2월 중순 **타이푸삼 힌두교 축제** 장소 말레이시아 전역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열리는 참회와 속죄의 힌두교 축제, 타이푸삼(Thaipusam). 타이푸삼은 신성한 한 달을 의미하는 '타이'와 보름달이 뜨는 날을 뜻하는 '푸삼'의 합성어로, 힌두의 신 '무루간(Murugan)'을 숭배하는 의식이 주를 이룬다. 사흘에 걸쳐 진행되는 타이푸삼은 첫째 날 사원과 신상을 꽃으로 꾸미는 것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각 지역의 사원까지 황소가 이끄는 꽃마차에 수브라마니암(Subramaniam) 상을 싣고 신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이 이어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셋째 날에는 신자들이 카바디(Kavadi)라고 하는 화려한 장식의 등짐을 메고 주문과 드럼 소리에 맞춰 힌두사원을 돌게 된다. 이날 수백 명의 신자가 고행을 몸소 실행하는 예식이 거행되는데, 길게는 1m에 이르는 가느다란 쇠꼬챙이를 혀와 뺨에 찔러 관통시키는가 하면 날카로운 갈고리로 등과 가슴의 피부에 피어상하는 등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을 볼 수 있다. 고통을 통해 지난 1년간 지은 죄를 속죄하고 축복을 비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월 14일~2월 17일  
**2014 인도네시아 패션위크**  
장소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최신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는 '인도네시아 패션위크'가 500여 개의 패션 브랜드, 20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가운데 자카르타의 중심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패션쇼와 전시회, 토크쇼, 세미나, 패션 경연대회, 4가지 메인 행사로 이뤄지는 이번 패션위크는 인도네시아 패션 디자이너 협회가 주관하고 인도네시아 관광청조경제부가 후원한다. 세계 최정상급의 디자이너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패션쇼와 신진 디자이너들의 패기 넘치는 퍼포먼스가 패션위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한국, 광주 | 2월 14일  
**제32회 고싸움놀이축제**  
장소 광주 남구 고싸움놀이테마파크

광주시 남구 칠석동 옷돌마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마다 주민들의 고싸움놀이가 열린다. 남성들의 역동성과 힘, 투지가 넘치는 호남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1970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가 됐다. 고싸움놀이 외에도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가 체험은 물론 가족과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농악놀이, 나래연 시연 등이 진행된다.



한국, 인천 | 2013년 12월 말~2월 말  
**강화빙어축제**  
장소 강화도 황청저수지 일대

겨울 축제의 꽃은 역시 빙어낚시이다. 강화도의 청정 자연, 덕산과 국수산에 둘러싸인 황청저수지에서 빙어축제가 열린다. 짜릿한 손맛을 느껴보려는 얼음 낚시꾼들로 해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 1급수의 깨끗한 물은 이곳의 큰 자랑거리. 빙어낚시 외에도 얼음 미끄럼틀, 얼음 썰매, 얼음마차, 제기차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겨울철 가족 나들이가 코스로 인기가 높다. 입장료는 1인 5000원이며, 결빙 상태에 따라 운영일자가 달라진다.



차이니스 타이베이, 타이중 | 2월 14일~2월 23일  
**2014 타이완 등불축제** | 장소 난터우현 중흥신촌

음력 1월 15일 원소절(정월대보름)에 열리는 세계적인 등불축제. 해마다 그해의 십이지신 형상을 본뜬 주등을 만들어 축제를 개최하는데, 형형색색의 등을 전시하고 축제의 흥을 북돋을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25회째를 맞이한 '2014 타이완 등불축제'는 2월 14일부터 보름간 타이중 교외의 난터우(南投)현 중흥신촌(中興新村)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여행자가 축제에 참여하고자 몰려드는데, 미국 디스커버리는 <Fantastic Festivals of the worl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타이완 등불축제'를 세계 최고의 축제라고 격찬한 바 있다. 한편 '작은 설'이라고 불리는 원소절에는 타이완 등불축제뿐 아니라 핑시의 천등, 타이둥 짜한단, 타이난 앤슈이 평파오, 타이베이 등불축제, 사당의 전통 제례의식과 같은 전통 대보름축제가 펼쳐진다.



## 대전, 한국

### 제6회 TPO 총회 성료

'제6회 TPO 총회'가 국내외 36개 회원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4일부터 4일간 대전에서 개최됐다. 본회의와 함께 다양한 모임과 강연이 마련돼 행사가 더욱 풍성했다. 우선 본회의에서는 공동사업을 선정하고 2014년 TPO 포럼 개최지를 말레이시아 코타바하루로 확정했다.



또한 2015년 제7회 TPO 총회를 중국 쑤안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광저우시를 회장 도시로, 부산광역시를 공동 회장 도시로 선출했다. 시장원탁회의에서는 회원도시 간 교류 확대와 축제 초청, 관광 분야 청년 인턴사업 추진 등을 합의했으며, 지역별 실무담당자 회의에서는 TPO 발전방안과 개선점, 회원도시 간 교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밖에 중국 정저우시와 장자제시가 TPO 회원도시로 새롭게 승인됐고, 참석자들이 '대전 선언문(Daejeon Declaration)'에 서명, 발표하며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동 추진하는 데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대전에서 처음 개최된 'TPO·대전 국제관광전'에는 TPO회원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업체 등 64개 기관의 58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밖에 한국관광공사, 하나투어 등의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 생생한 관광 분야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서울과 대전 지역의 호텔·여행사 등이 현장에서 직접 채용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 2013년 TPO 베스트 어워드(Best Award) 수상자 발표

'2013년 TPO 베스트 어워드'가 지난 9월 개최된 제6회 TPO 총회에서 진행됐다. 이는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관광산업 분야의 우수 활동 도시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7개 항목에 총 9개 도시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베스트 마케팅 캠페인 부문에는 타이완의 타이난시가, 베스트 인쇄광고 부문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시가 수상했고, 베스트 축제·이벤트 부문에는 창원시와 말레이시아의 코타바하루가 공동 선정됐다. 베스트 도시관광경영자 부문에는 익산시가 채택됐고, 베스트 홍보 책자 부문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공동 수상했다. 그밖에 베스트 웹사이트 부문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베스트 홍보 캠페인 부문에는 죽자카르타가 우수 회원도시로 선정됐다. 더불어 TPO 10주년 공로상 시상도 진행됐다. 수상자에는 후쿠오카시와 광저우시 여유국 이지신 부국장, 주한명 TPO 사무총장, 전주 한스타일관광과 조영호 계장, CITS Guangdong Co., Ltd가 뽑혔다.

## 엔타이, 중국

### 상하이에 관광 마케팅센터 설립

중국 엔타이와 상하이 두 지역의 관광 분야 교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엔타이 관광 상하이 마케팅센터(烟台旅游上海推广中心)가 지난 9월 9일 상하이시에 정식 출범했다. 이어 엔타이시 관광설명회가 와인 제조회사 장위의 와인감정센터(葡萄酒品鉴中心)에서 열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세계적인 포도 생산지인 엔타이시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중국 와인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산과 바다, 강, 호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골프와 등산 같은 레저 활동은 물론 온천과 와인 등 다양한 테마의 관광이 가능한 도시다. 한편 120년 역사의 장위그룹은 와인감정센터 내부에 엔타이 관광 이미지와 와인, 기념물을 전시하고 있다. 여행 상품과 홍보물을 판매하는 공간에서는 와인과 사과 등 엔타이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고, LED 전시물도 관람할 수 있다.



## 호찌민, 베트남

### '2013년 러시아 문화의 날' 행사 열려

'2013년 러시아 문화의 날' 행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빈동 성에서 개최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12일에는 성대한 개막식이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고, 15일과 16일에는 러시아 예술 공연 프로그램이 호찌민 시와 빈동 성에서 각각 진행됐다. 특히 러시아의 극단 예술 공연과 사진전, 영화 상영 행사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러시아 문화관광부와 손을 잡고 오는 2015년까지 베트남과 러시아 연방 간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마련됐다.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관광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베트남은 러시아를 주요 관광 수출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국립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관광객 17만 명이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7.4% 증가한 수치다.



## 페낭, 말레이시아

### 페낭 시장, 부산·김해 방문

말레이시아 페낭 시장 파타히야 빈티 이스마일(Patahiyah Binti Ismail)을 포함한 페낭 시 방문단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를 찾았다. 향후 TPO 사업 계획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부산광역시의 우수정책 벤치마킹,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첫날에는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국제자문대사와 각 부서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 간 관광경영, 녹색계획, 환경지속 가능성, 안전도시 등 여러 분야의 정보를 교환했다. 이어 방문단은 TPO 사무국과 함께 부산의 해동 용궁사를 방문하고, 야간 관광상품 중 하나인 티파니 21호 크루즈 선상투어에 나섰다. 페낭 시장 파타히야 빈티 이스마일은 "광안대교의 야간 조명이 부산을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22일에는 부산 중구청을 찾아 2014년 TPO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김해시청을 방문해 페낭과 김해 두 도시가 함께 관광 발전을 도모해나가기로 약속했다.

## 남해, 한국

### 독일마을 맥주축제 '문전성시'

경남 남해의 대표 축제로 알려진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 기간 내 남해군을 찾은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한 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맥주와 음악, 춤



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독일 문화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남해군 관계자는 "맥주축제가 보물섬 남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방문객에게 다양한 안주를 제공해 입맛을 사로잡고, 독일 맥주가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다케오, 일본

### 다케오 온천 가을 축제 '성황'

일본 다케오시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다케오 온천 가을 축제'를 중요문화재인 로몬(樓門)과 다케오 신사 인근에서 개최했다. 전야제에는 1186년부터 전해 내려온 에이토우(エイトウ) 전통 행사를 비롯해 어린이부, 성인부, 기업 대항전 등 60여 팀의 줄다리기 대회가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자선바자와 팔떡 대접 행사, 어린이 가마 행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특히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야부사메(流鏑馬)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827년 전통의 '야부사메'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히는 일본 전통 무예 의식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궁술 행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다케오는 후쿠오카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로 지리상 가까우며, 한적한 올레길과 역사 깊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강릉, 한국

### 제5회 커피 축제 2013, 관광객 몰려

'제5회 강릉 커피 축제 2013'이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강릉 실내종합체육관과 강릉시 일대에서 개최됐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강릉 곳곳에 자리한 커피 명가와 명장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해 2009년부터 강릉시가 마련한 문화 사업이다. 올해에는 30만 명이 참가해 어느 때보다 축제 열기가 뜨거웠다. 축제 관계자는 "올해는 10월 연휴와 축제 기간이 서로 맞물려 전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았다. 그밖에 행사장을 한곳에 집중하고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부대행사를 묶어 진행한 점도 축제의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커피머신 업체들은 준비한 물량을 행사 시작 이틀 만에 모두 소진했으며, 예약 주문이 쇄도했다고 전했다.



빅토르 콘드라쇼프 Viktor Kondrashov, 러시아 이르쿠츠크 시 시장

# 역사와 변화, 그 중심에 선 이르쿠츠크

러시아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주의 주도, 이르쿠츠크(Irkutsk). 러시아의 중추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르쿠츠크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경제, 관광 등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보급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각종 문화 공간이 가득한 시베리아 문화의 보물 창고, 이르쿠츠크는 최근 '러시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0위' 안에 선정되면서 전 세계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르쿠츠크 시의 빅토르 콘드라쇼프 시장에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이르쿠츠크 시의 관광 자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물었다.



시베리아 문화의 보물 창고로 알려진 이르쿠츠크는 어떤 도시인가요? 이르쿠츠크 시에 대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이르쿠츠크는 무역과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침엽수로 가득했던 이곳은 3세기에 걸쳐 흥미로운 도시로 성장했고, 현재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도시로 명성을 얻은 이르쿠츠크는 현대화된 고층 건물과 18, 19세기에 지어진 목조·석조 건물이 함께 어우러져 1970년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시 전체가 투조법(透彫法)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목조 주택으로 이뤄져 있으며 20개가 넘는 다양한 자원과 문화·역사적 중요 건축물이 700여 채나 있습니다. 이 중 100개 이상은 국보급 가치를 지니고 있죠. 2011년에는 이르쿠츠크 시의 350주년을 기념해 '이르쿠츠크 슬로보다(Irkutsk Sloboda)'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갤러리와 박물관, 카페, 호텔 등 각종 상점은 물론 천체 투영관(Planetarium)이 자리해 있고, 역사적 유산이 산재해 이르쿠츠크 시민들과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르쿠츠크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0위' 안에 선정됐으며 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과학·역사적 전통성과 세계를 향한 개방성이 융합된 이르쿠츠크는 현재 러시아의 중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를 방문하면 꼭 둘러보아야 할 관광지가 있을까요?**  
**시장님께서 꼭 추천하시고 싶은 관광지가 있나요?**

이르쿠츠크에는 오래된 목조 건물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많은 관광 명소와 볼거리가 즐비합니다. 이르쿠츠크는 2010년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역사적 도시이자 시베리아 목조 건축물의 수도

로서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이 1000개가 넘는 데다 이 중 700여 개의 목조 주택이 20세기 초 독특한 공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목조 건물로 이뤄져 있고, 도시 내 사원 또한 시베리아와 극동의 다른 지역보다 그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에 위치한 '홀리 크로스(Holy Cross)' 교회는 독특한 건축물로 손꼽히는데, 시베리아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져 눈길을 끄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로 장식됐으며 건축의 상단은 불교 사원의 탑과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이르쿠츠크와 다른 지방 도시와 차별화된 점이라면 4개의 극장과 필하모니

오르간홀,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단지, 차 박물관, 아트갤러리 등 많은 박물관과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혜택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르쿠츠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120개 이상의 국적 소지자들이 우리 시에 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르쿠츠크 국립문화 자치단체 및 조직에 참가해 그들의 정체성과 전통, 역사 및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로서 이르쿠츠크의 가장 큰 장점은 지리적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앙가라 강을 따라 70km에 이르는 거대한 침엽수림(러시아어로 '타이가')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깊고 맑은 호수로, 남북 길이가 자그마치 600km에 달할 뿐 아니라 둘레가 약 2000km로 방대합니다. 바이칼 호수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목조 건축 박물관 '탈치(Taltsy)'와 바이칼 박물관을 관람합니다. 이르쿠츠크는 신비하고 흥미진진한 협곡과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만(灣)이 즐비해 낚시와 사냥, 스케이팅과 스키 그리고 도보 여행과 승마 여행의 최적지입니다. 동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할 경우 이 모든 즐거움을 기차의 작은 창문을 통해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르쿠츠크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도시 행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로 언론 및 미디어, 주요 관광 관련 업체를 위한 관광전 유치와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르쿠츠크에서는 바이칼 경제포럼과 지역 회의, 국제 전시, 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했고, 관광산업과 관광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르쿠츠크 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여행자의 체류 기간 연

장과 경유뿐 아니라 이르쿠츠크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와 내년, 이르쿠츠크에서 열리는 행사나 이벤트는 무엇이 있나요?**

해마다 무궁무진한 이벤트와 축제, 경연대회, 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해외 참가자와 여행자들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14 Bandy World'와 국제 클래식 음악축제 'Stars on Baikal'을 비롯해 '이르쿠츠크 과거 탐방'과 같은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TPO 회원이 된 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TPO 행사와 활동에 참여한 것이 도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TPO를 통해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TPO 회원도시 간 정보 교환과 우리 시의 행사를 홍보할 기회가 많아진 것도 그중 하나죠. 지난 'Tourism Universiade 2013' 행사에 이르쿠츠크 언어 대학(Irkutsk State Linguistic University)의 학생들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바라고, 이르쿠츠크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르쿠츠크 시민의 교육 수준은 매우 높는데 많은 학생이 관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직해 TPO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TPO를 통해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TPO 회원도시 간 정보 교환과 우리 시의 행사를 홍보할 기회가 많아진 것도 그중 하나죠. 지난 'Tourism Universiade 2013' 행사에 이르쿠츠크 언어 대학(Irkutsk State Linguistic University)의 학생들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르쿠츠크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발전상 혹은 미래 비전에 대해 들려주세요.**

미래의 이르쿠츠크는 살기 좋은 도시이자 투자자와 여행자에게도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시베리아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2012년에는 2025년까지의 이르쿠츠크 시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연령,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이 도시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르쿠츠크 시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미래의 이르쿠츠크는 살기 좋은 도시이자 투자자와 여행자에게도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시베리아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2012년에는 2025년까지의 이르쿠츠크 시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연령,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이 도시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르쿠츠크 시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PO 회원도시의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먼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원도시 간 공동 프로젝트에 이르쿠츠크도 참여해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먼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원도시 간 공동 프로젝트에 이르쿠츠크도 참여해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